

구례,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 맞아 행사

‘자기혈관 숫자알기’ 주제로 ‘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건강 상담, 혈압·혈당 수치 측정, 각종 보건 사업 안내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고자 ‘레드서클 캠페인’을 지난 3일 실시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5일장 시장 내 건강부스를 운영해 건강 상담 및 혈압·혈당 수치 측정, 각종 보건 사업 안내 등을 실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단일 질환으로 암과 함께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위험한 질병이자

만 선별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의 적정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

해 8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5일과 24일에는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 직원 및 주민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심방세동 검사를, 17일에는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통합보건 협동 캠페인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 동영상 송출, 홍보물 배부 등 군민의 건강 개선과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각종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자기 혈관 수치를 바로 알고,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질환에 대



구례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고자 ‘레드서클 캠페인’을 지난 3일 실시했다. /구례군 제공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올해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서 특별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영, 키다리아저씨 버블쇼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

곡성군(군수 유근기)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과 가을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곡성군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기차 마을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기기관차, 섬진강레일바이크는 운영 횟수 감차 등 없이 매일 5회 정상 운행된다. 생태학습관, 4D영상관, 치즈뿌리 놀이터, VR체험존 등 전시시설과 미니기차, 드림랜드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도 평상시처럼 운영된다. 단 증기기관차나, 섬진강레일바이크는 매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섬진강기차마을 홈페이지(<http://www.gstrain.co.kr/>)에서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석을 선물하고자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 무대에서 키다리아저씨와 함께하는 풍선쇼, 버블쇼 등이 펼쳐진다. 기간 중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기차마을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드림랜드 광장에서 풍물공연도 진행된다. 여성 타악그룹 ‘도리’가 신명나는

가락을 통해 관람객들을 풍물 세상 속으로 어우러도록 이끌 예정이다.

한편 섬진강변에 위치한 섬진강천문대 도연휴기간에 ‘한기위 보름달 관측행사’,

‘천체 브로마이드 증정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섬진강을 드라이브하며 기차마을과 함께 들려보기에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단 천문대는 추석 명절 당일인

13일은 휴관이니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섬진강기차마을로 놀러 오신다면 기울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곡성군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과 가을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여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120명 투입

2일 발대식 열고 초등학생 교통사고·아동범죄 예방 다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34개 초등학교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120명을 투입한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는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횡단보도 안전지도, 스쿨존 과속치량 계도, 우범지역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등굣길 1시간과 하굣길 2시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시는 지난 2일 오후 보건소 회의실에서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학부모님은 자녀 걱정을 덜고, 신중년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앞으로 근무 인원과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10월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50명을 시범 운영했다. 2018년에는 160명, 2019년에는 220명으로 인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여수=주영남 기자 jyn@



지난 2일 오후 여수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발대식’이 열렸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120명이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아동범죄 예방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순천 별량면, 고들빼기 펌투어 추진

로컬푸드 소비자 38명, 고들빼기 김치담그기 등 체험 행사